

2018년8월25일 “(참된 공동체4) 기쁘신 뜻을 위하여”(빌2:12-14)

[1] 주님의 낮아짐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됨”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움으로써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하신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낮아짐의 참 동기가 되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공동체의 진면목입니다.

[2] 공동체적 구원을 위하여

12절에서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부족함을 알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따라 낮아짐으로 하나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며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의 공동체적 의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열매들을 맺으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공동체적 성품이 중요한데, 이는 사랑, 배려, 공감, 인내, 겸손, 온유 등입니다.

[3]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들이 우리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13절).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자원함으로) 사모하여 소원을 가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참 소원을 갖도록 도와 주기 위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원하는가에 대한 확신과 실행의 의지는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와 목장, 지역사회,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를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게 되면 그것은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맺음>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낮아짐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예 헌신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새로운 현실로서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사도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이해한 바를 말씀해 봅시다(위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2.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가진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쁘신 뜻을 확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